

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서관)

현대불교

고객을 쓰는 서비스는 정말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의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
한도 10배 상승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무이자! 0% 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발행인: 김경삼/논설위원: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특별시 중구 건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9월 4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의복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또한 의복은 착용한 사람의 사회적 지능과 성향을 상징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출가 수행자들에게 승복은 그 자체로 지나는 의미가 크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다원화되면서 포교의 범람도 함께 다양해져 스님들의 의복(衣制)에 변화가 따라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의제부터 법계에 따라 제대로 착용하는 것이 승풍기강확립의 첫걸음이라는 시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과 조사들은 승복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짚어본다.

출가자는 사의법(四依法) 중 의복을 지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비구승에게만 해당되는 법칙이다. 바림의(巴利)의(衣)는 본소의(舊布衣)에 의한 것, 식(食)은 결식(乞食)에 의한 것, 주(住)는 나무아래 앉을 수 있는 곳에 의한 것, 약은 부랑약(腐爛藥)에 의한 것을 말한다. (사본물)

본소의는 쓰레기장 기타등에 버려진 해진 천을 주워서 엮어 만든 의복이다. 견, 면, 양모, 마, 나무껍질, 새털, 풀을 재료로 한 옷이나 죽은 사람을 썼던 무덤 사이에 버려진 것, 의식에 쓰여서 버려진 것도 본소의다. (사본물)

생선이나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단식 내세 식발 결발 면지, 거친사슴가죽을 입는 것도 화신(火神)을 섬기는 것도, 불사(不死)를 얻기 위한 고행도, 베타의 주문 공양 제사나 계절에 따른 고행도 모두 의복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 사람을 청정하게 할 수 없다. (순타니피터)

나는 일체의 옷을 저축해서 안 입고 있다고 하고, 또한

포복의 신전

어떤 옷을 저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가. 민일 옷을 저축함으로써 곧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더하게 하고 착한 법을 쇠하게 하면 이런 옷을 저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어떤 옷을 저축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꼭 착한 법을 더하게 하고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쇠하게 하면 이러한 옷은 저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중이환 자관실경)

명이나 의식(衣食) 등의 이익을 생각치 말고 은갖 공덕이나 이익등을 탐내지 말며 세상법에 마음을 걸리게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백장 회해선사 어록)

지혜가 뛰어난 제자는 행복한 사람(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음식과 침구와 가사의 쾌를 세탁할 물을 조심해서 사용한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음식을 씻고 침구와 가사를 세탁할 물같은 것에 집착하여 더럽히는 일이 없다. 마치 연꽃위에 구르는 물방울처럼. (순타니피터)

팔만대장경 뱃길이운 답사	14면
장애인 1일 병영체험	11면
희망대중사 생애 '교성곡으로'	13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해인골프장 반대 세계여론에 호소

48만명 서명...유네스코에 진정서 부다피아 인터넷 통해 '해외서명' 전개

해인골프장 건설반대운동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해인골프장 건설반대 서명자가 지난 8월29일로 48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해인골프장건설지지 해인총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덕곡면대책위 등은 지난 8월30일 서울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팔만대장경과 장경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점을 유네스코(UNESCO·국제연합 교육과학 문화기구) 본부에 보존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화유산을 보존하려는 세계여론의 입박이 해인골프장 사태해결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관련기사 3면)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인총림대책위는 "해인골프장 사태는 팔만대장경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보호하려는 한국인과 인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문화유산협약'에 따라 골프장 건설 허가 취소 등 정부의 적극적인 보존대책을 촉구했다. 해인총림대책위는 유네스코

협약에 의해 '문화 및 자연유산'으로서 증대하고도 특별한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위험에 빠진 세계유산목록에 기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위험에 처한 유산목록'에 기재하는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인대책위는 또 "1968년 채택된 '문화유산의 보존에 관한 권고'에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기준은 그 국가의 영토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해인사와 3.5km 떨어져 문제가 없다는 가이개발의 주장은 유네스코 권고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인대책위는 이에 따라 "장경각과 경관에 대한 완벽한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주변 환경을 변경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서울대 명예교수는 "골프장에서 부러지는 농약의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농약으로 인해 장경각 주변의 생태과 교외 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계종과 선학원 관계자들은 지난 8월 27일 만나 갈등을 청산하고 불교종회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사진=고형배 기자)

해인대책위 지산스님은 "세계 문화유산 보호라는 차원에서 세계여론에 호소기로 했다"고 밝히고 "대법원의 판결과는 관계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부다피아'에서도 9월 4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해인골프장 건설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해외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성은 기자)

산문폐쇄도 불사
월주 총무원장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월간(환경운동) 9월호 특집인 터뷰에서 가야산에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우리가 문화

승가대학원 은해사에 설립

10월7일 개원...승남 10년이상 학인모집

조계종이 승가대학(경원)과 학원의 전문교수인력 육성을 위해 추진중인 승가대학원 10교구본사 은해사에 설립되고 오는 10월7일 개원한다. 조계종 교육위원회(위원장 일산)는 지난 8월 23일 회의에서 이같이 확정하고 학인모집을 공고했다. 응시자격은 승남 10년 이상의 승려로 △장원 사립

조계종 총림을 비롯 전국 선원과 사상은 지난 8월28일 불기 2540년 하안거를 해제했다. 이날 조계종 종정 일산스님은 풍도사에서 해제법어를 통해 "계한 뒤 무행이면 앞을 알이요 머리속 앞을 알이 구

병자년 하안거 해제 두산이라"며 "마음속 부처를 증득한 뒤에야 환한 대도가 되리라"고 했다. (관련기사 4면)

이번 하안거에는 해인사 풍도사 승공사 수역사 백양사승 5대총림을 비롯 66개 선방에서 1천8백여 대승이 3개월간 정진에 입했다.

후진국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수처스러운 일이라며 "해인골프장 건설이 강행될 경우 주요 사찰의 산문폐쇄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목 중장경력 2년이상자 △불교학 관련 석사학위소지자 △장원과 동국대 또는 경원대 중 앙승가대학의 두 교육기관을 모두 졸업한자로 9월21일까지 응시접수를 받는다. 승가대학원은 3년과정으로 사교, 대교, 수외과목을 수학과 졸업자는 승가대학과 학원의 교수자격이 부여된다.

조계종-선학원 "화해약수"

'현안 협의기구 설치' 등 4개항 합의

정관계정을 놓고 갈등을 빚어오던 조계종 총무원과 재단법인 선학원이 그동안의 불편한 관계를 종식하고 한바탕 화해를 나눴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화해를 다지는 단초가 마련되어 다행이다"며 "조계종을 바탕으로 하는 선학원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불교종회를 위해 협력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선학원 이사장 정일스

님도 "재단법인 선학원과 조계종은 연원이 있어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고 밝히고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절차방향을 놓고 두해동안 갈등이 빚어졌으나 앞으로 한바탕 화해를 재확인해 나가자"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 부장스님들과 선학원 이사스님들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모임에서 양측은 △조계종과 재단법인 선

학원은 한바탕 화해를 확인하며 그동안의 갈등과 불편한 관계 종식 △선학원 임원들의 제직 원 철회와 선학원에 대한 풍자의 규제 해제 △선학원 재단 내부규정에 '재단의 임원은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조항 신설 △현안문제해결을 위해 협의기구 설치 등 4개항을 합의했다. 이로써 8월3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행사교역원에 선학원 소속 행사 11명이 추가로 임명됐다.

향후 조계종과 선학원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게 될 협의기구는 양측 4~5명으로 구성하고 9월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 '스님 노후 연금제' 실시 3·15면

대생용 미륵반가상 중·고교에 보낸다

동참해주신 분

△귀일 수경사주지: 의성 금성여상 금성중·고(2구좌) △남산면: 부산 예문여고(2구좌) △김기현: 광주 전남고 고충중(2구좌) △심영자: 언남고(1구좌) (8월29일 현재 총 445구좌 접수)

어떻게 참여하나

△보급기간: 1996년 12월 31일까지
△보급대상: 전국 중·고등학교 각 1점씩 총 4,568점

△구좌단위로 참여(1구좌 10만원)
△중단·사할·기업·단체·개인 누구나 가능
△수령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지역 학교·출신학교·자녀가 다니는 학교등)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 온라인 계좌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입금후 반드시 본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미래와 청소년을 위한 대행스님 큰법회

9월15일 잠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만남시다



이 세계는 지금까지 너무나 물질적인 발전에만 치우쳐 왔습니다.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공황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자유인의 길을 일러 주신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하는 임의 시급성은 불자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수행에만 전념하면서 외부와 문을 닫고 사는 불교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불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평소 "불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살의 지혜'라고 강조해 오신 대행 스님을 모시고 봉행하는 이번 큰법회는 우리 모두에게 대자유의 길을 열어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고라는것, 그것은 결코 피할 대상도 싫다거나 좋다거나 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저 묵연히 수용할 대상일 뿐입니다. 오면 오는 대로 놓고 가면 가는대로놓는 중에 그것이 마음 바탕과 들어안인 이치를 바로 볼 수 있게 될 때 고란 실재하는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 대행스님 법어중에서 -

- 주제 : 한마음의 인생살이에는 고(苦)가 없다
- 일시 : 불기2540년 9월 15일 오후2시
- 장소 :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포교원, 문화체육부, 서울특별시, 전국부구니회, 군포교진흥회, 파라미타,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

- 법회프로그램 안내
1. 식전 행사(13시 20분~14시)
: 비디오편영·어린이 동물과 공연·내외빈 입장
 2. 법 회 : 「한마음의 인생 살이에는 고(苦)가 없다」
 3. 특별 공연 : 연주·국립국악 관현악단(지휘 박범훈)·창·김성녀·합창·한마음선원 합창단

교통수단
전철 : 2호선 성내역 하차 ~ 일반 버스 : 212 성내역에서 서울 버스 운행 예정
5호선 올림픽역 하차(2호선 왕십리역에서 마천행 승차)
버스 : 남4문 평화의 문 ~ 일반 버스 : 21-2, 813-2, 좌석버스 : 30 / 남2문 ~ 일반버스 : 21-2, 813-2 좌석버스 : 41 / 동2문 ~ 일반버스 : 21-2, 67, 813-2 좌석버스 : 41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禪院)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2
☎ 0343)72-3100 · 1512